

9월이 시작됐음에도 한국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인 것 같더군요.

이곳이야 뭐 늘 여름이지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뜨거웠던 여름을 피해 오듯 여름이 시작될 무렵 돌아온 치앙라이에서 지난 시간은 뜨거웠던 날씨를 잊을 만큼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던 교회를 정리하고 다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썼지만, 비워뒀던 공백을 메꾸기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제 부족함 때문이지요.

지난해까지 협력하던 맥 목사의 문제로 올해 들어 예배를 멈췄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네요.

지난 연말 맥 목사가 아동 성추행 문제로 노회에서 제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 경로로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서 맥 목사에게 그 이유로 더 이상의 동역은 못 하겠다고 통보한 후 매달 한두 번 맥 목사가 함께 드리던 예배도 끊긴 것이지요.

그 후 치앙라이로 와서 맥 목사를 만나서 들어본 자초지종은 어느 정도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축복의 씨앗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인, 예전 ‘빵하교회’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 빵하교회와 맥 목사가 아직 불편한 관계임을 생각해 보면 맥 목사 말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CCT 2 노회장이 빵하교회의 장로니까요. 그러나 맥 목사는 아이들을 예뻐한 것뿐이라곤 해도 그런 일이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협력 관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Joyful 썬나’의 예배는 어떻게라도 계속 이어 나가려 했습니다만, 더 이상 제 욕심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져 그간 기도해 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로 그 값을 치루긴 한없이 모자라지만 어쩔 수 없어 정리를 결정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그 땅의 소유주도 더 이상 예배처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더 이상 고집부리질 못했습니다.

방콕을 떠나기로 하고 태국 북부를 돌아볼 때 많은 비어 있는 교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이 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12년 전 광주 모 교회의 장로님이 자신과 친구의 퇴직금을 모아서 지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제 무능함으로 태국 최 북단 변경의 시골 마을에서 초라하게 그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Kelly & Jeremy